■ 지금 여기 ■

2012년 미국 오바마 정부, “불법” 외국인의 자녀들, 그리고 드림법안(The Dream Act,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현재

권 은 혜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서 미국에 처음 들어온 젊은이들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의 추방을 영구히 유예할 수 있는 정책(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을 발표했다.[1] 본래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은 200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미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드림법안의 통과였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개발, 원조, 교육”법안을 지칭하는 드림 법안은 미국 교육을 받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이민의 멍에를 쓰고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이후 국외추방의 위협을 받고 사는 외국인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주어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드림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정책이었고, 민주당이 행정부와 양원을 모두 장악하던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는 실현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2010년, 드림법안은

1) 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이민자의 자녀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둘째, 정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발표시점에 미국에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교육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미국 연안 경비대나 미국 군대를 명예롭게 퇴역한 경우, 이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넷째, 중죄로 기소되거나 중대한 경죄 혹은 복수의 경죄로 기소된 적이 없어야 하며, 국가와 공중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30세 이하여야 한다. Memorandum from Janet Napolitano,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Exercising Prosecutorial Discretion with Respect to Individual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June 15, 2012, http://www.immigrationpolicy.org/sites/default/files/docs/Napolitano-memo-6-15-2012.pdf [검색 2012년 12월 14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찬성표를 더 많이 얻기는 했지만 소수파의 의사진행방해와 무관하게 통과될 수 있는 60표를 획득하지 못했고 야당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의사진행방해를 사용해 드림법안 통과를 좌절시켰다.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되어 현재 집행 중인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은 십년 넘게 표류 중인 드림법안을 대신할 오바마 행정부의 대안이었다. 비록 외국인 자녀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의 법적 지위로 가는 길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책에 따라 이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유예 신청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 추진 이면에는 드림법안의 의회 표류에 좌절하지 않고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커밍아웃"을 결심한 젊은 이민자들의 운동이 있었다.[2]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 운동집단으로는 젊은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지역 모임 네트워크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nited We Dream)이 있다.[3] 2009년에 결성된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성년에 가까운 이민자 자녀들과 젊은 이민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미국에 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유권자들부터 상원의원에 이르는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는 운동을 벌였다. 스스로를 드리머(DREAMers)라고 부르는 '유나이티드 위 드림'의 회원들은 2년 전 커밍아웃 행사를 공개적으로 열었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류 기록없는, 두려울 것 없는(undocumented, unafraid)"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이민국에 저항했다. 2010년 드림법안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방해로 통과되지 못하자, 드리머들의 의지는 더 강해졌다. '유나이티드 위 드림'의 개비 파체코Gabby Pacheco는 상원 의장 해리 리드Harry Reid를 만나는 자리에서 행정부 수반의 권력으로 젊은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아줄 것을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리드는 이에 포옹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2011년 3월에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멤피스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 집회를 벌이고 대통령에게 추방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2) Julia Preston, "Young Immigrants Say It's Obama's Time to Act," November 30, 201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2/12/01/us/dream-act-gives-young-immigrants-a-political-voice.html?pagewanted=all&_r=0.

3) http://unitedwedream.org/about-us/history/

2011년 초까지 오바마 행정부 산하에서 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추방되고 있었다. '유나이티드 위 드림', 그리고 추방정책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던 라티노/히스패닉 공동체 조직들의 추방 정지 요청에 화답해,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여름부터 범죄자 추방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추방정책 실행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2012년 봄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12개 도시에서 집회를 벌였다. “불법”이라 “서류”가 없는 이들에게 집회 장소로 비행기를 타거나 차로 운전하는 것 모두가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들의 공개적이고 정치적인 행보는 대선정국의 흐름 속에서 젊은 이민자들의 추방 방지와 법적 지위 보호 문제를 주요 이슈로 만들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겨냥해 쿠바계 이민자의 후손이기도 한 플로리다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2012년 4월에 젊은 이민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다.

'유나이티드 위 드림'이 루비오의 공약을 지지하고 나서자 백악관은 이 단체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4월 중순에 백악관 직원들은 워싱턴의 한 교회에서 '유나이티드 위 드림' 대표들과 회의를 가졌다(이 회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라 백악관에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백악관 측은 대통령에게 추방 방지 명령을 공표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유나이티드 위 드림' 대표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5월 말에 이들은 거의 백 명에 달하는 법대 교수들과 법학자들의 서명을 모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 서명한 법대 교수들은 대규모 추방 연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명시했다.[4]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시민 불복종으로 새로운 저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6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초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었다. 6월 15일, 오바마는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을 발표했고 드리머들은 이를 그들의 승리로 받아들였다.[5]

비록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이 젊은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4) Julia Preston, “Students Press for Action on Immigration,” May 30, 201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2/05/31/us/students-press-for-action-on-immigration.html?_r=1&emc=eta1.

5) 유나이티드 위 드림의 활동은 다음의 기사에 근거하여 기술했다. Preston, “Young Immigrants Say It’s Obama’s Time to Act.”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 아동으로 온 개인들에 대해 검찰심사적 신중함(prosecutorial discretion)을 실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발표날에 공개된 국토안보장관 자넷 나폴리타노의 메모는 이 정책의 실행으로 이민법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민법은 강하면서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 법들은 개별 예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실행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이 법들은 생산적인 젊은이들을 제거해 그들이 살지도 않았거나 그 언어도 말할 줄 모르는 나라들로 보내기 위해 고안되지도 않았다. 사실 이 젊은이들은 이미 중요하게 이 나라에 기여해왔다. 이미 다른 영역에서 실행된 바 있는 검찰심사적 신중함은 여기서 특별히 정당화될 수 있다.”[6)]

시민권이 없지만 드리머들이 단체 행동을 취한 덕분에, 오바마 행정부는 젊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방지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고 이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오바마 지지로 이어졌다. 오바마의 대선 경쟁자였던 공화당 미트 롬니는 드림법안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그의 대안이 “[불법 이민자들] 스스로의 추방(self-deportation)”이라고 말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제 드리머들은 오바마 대선 2기에서 드림법안이 미국의 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lucydiamond@naver.com

6) Memorandum from Janet Napolitano,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Exercising Prosecutorial Discretion with Respect to Individual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